

## 87세 단색화 거장 “내 평생 그림 못 쉬겠다”

February 16, 2022 | 이은주 기자

Page 1 of 1

# 87세 단색화 거장 “내 평생 그림 못 쉬겠다”

### 하중현 화백 대규모 개인전

국내 첫 공개 ‘이후 접합’ 등 주목  
“제작각 물감 형태, 자연의 얼굴  
예전엔 창고에 쌓였던 현대 미술  
흔적 모아 후세에도 볼 수 있길”

“사람도 똑같은 얼굴이 없듯이 마대를 뚫고 나오는 물감의 형태도 제작각 달라요. 그런 자연의 얼굴을 작품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단색화의 거장 하중현(87) 화백은 자신의 작품 세계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했다. 대규모 개인전을 앞두고 15일 서울 삼청동 국제갤러리에 만난 그는 구순을 앞둔 나이에도 창작에 대한 식지 않는 열정을 드러냈다.

“내 나이에 붓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안 팔리는 현대 미술을 해서 창고가 가득 찼는데, 한동안은 또 불같이 그림이 나갔죠. 팔릴 만하면 또 새로운 시도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작품을 가져갈까 봐 겁이 나요. 내 흔적과 작품을 모아서 후세에도 볼 수 있는 미술관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달 13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하 화백의 대표작인 ‘접합’ 연작과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이후 접합’ 연작 등 1990년대 이후 진화해 온 그의 작품 세계를 총망라한다.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단색화의 선구자 하중현 화백이 15일 열린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뒤로 보이는 작품이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이후 접합’ 연작이다. 연합뉴스

1970년대 시작된 ‘접합’ 연작은 울이 굵은 마포 뒷면에 두꺼운 물감을 바르고 천의 앞면으로 물감을 밀어 넣는 배압법(背押法)이라는 독창적인 기법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았다. “1950~60년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캔버스나 물감을 사기 힘들었어요. 텐트 천이나 철사로 해 보다가 마대로 작업을 시작했는데, 마대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뒤에서 물감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물감이 마대 형태에 따라 꼬부라지거나 굵은 것도 있고, 가는 형

태의 것도 있더라고요. 평소 영동한 짓을 많이 한 것이 도움이 됐죠.”

새 기법의 최신작인 ‘이후 접합’ 연작은 나무 조각 자체의 물성으로 새로운 의미의 표면을 형성하고, 조각적인 요소를 통해 평면에 입체성을 부여해 ‘접합’의 범주를 확장시켰다.

“뭐든지 좀 끈질기게 하는 편이에요. 마대와 물감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마대 뒤에서 물감을 밀고, 앞에서 또 한 번 밀어 증성화하면서 작업을 발전시키죠. 저만의 캔버스와 이론을 만들어 가면서 새로운 작품이

탄생합니다.”

평생 회화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물성에 대한 실험을 거듭해 한국적 모더니즘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화백은 오는 4월 개막하는 세계 최대 미술 축제 베네치아비엔날레에서 자신의 60년 화업을 정리하는 회고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작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열심히 해서 앞으로 국내 전시회도 더 많이 열고 싶습니다. 평생 그림을 쉬지 못할 것 같아요.”

이은주 기자